

 POSRI 보고서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김지선 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jisunkim@posri.re.kr)

유승록 연구위원보, 철강연구센터 (srryu@posri.re.kr)

[목 차]

1. TPP, 세계 최대 경제블록의 탄생
2. TPP에 따른 우리나라 파급영향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타결로 세계 GDP 36%의 최대 경제블록 탄생
 - TPP는 전 세계 총생산 (GDP)의 약 36%, 인구의 약 11%, 세계 교역의 약 25% (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 우리나라는 미참여
 -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전통적인 FTA 부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는 '21세기형 FTA' 지향
- 우리나라는 TPP 타결로 (1) 관세율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2) 역내 생산 네트워크 배제로 무역전환 등 부정적 영향 예상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양자 FTA를 체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 등과의 FTA를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 효과 축소로 가격경쟁력 하락 예상
 - 누적원산지기준* 적용과 이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로 기존에 한국에서 공급받던 소재, 부품 등을 역내 국가 조달로 전환,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 등의 우려 존재
 - 또한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국내 생산기지의 TPP 회원국으로의 이전 전망
 - * 누적원산지기준: 역내 생산 소재 사용 시 자국산 인정
- 협정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인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상이
 - [철강] 對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베트남, 말련 등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또한 누적원산지기준 적용으로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역내 소재조달 전환 우려
 - [자동차부품/완성차]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관세의 즉시 혹은 단계별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가전/전자]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우 전자/가전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고, 현지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영향은 제한적
- 미국과의 관계, 對 TPP 교역규모 등 여건 감안 시 TPP 발효 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후발 참여국으로서의 제약 존재
 - TPP 참여 시,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 기체결 FTA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으로 수입 증가 등 피해 우려 상존
 - 또한 우리 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수용해야 하고 기존 회원국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접근과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
- 철강산업의 경우 TPP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가 예상되는 바 수요산업 이탈 방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재정비와 TPP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재 및 부품의 TPP 역내 조달 증가가 예상되는 바, 해외 고객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솔루션마케팅 강화와 해외 수출전략 재정비 필요
 - 또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경우 TPP 생산 네트워크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이익 극대화 도모

1. TPP, 세계 최대 경제블록의 탄생

□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타결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

-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12개국 통상장관회의 ('15.9.30~10.5)에서 마지막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 지재권, 유제품 분야 합의 도출로 협상 타결 선언
- TPP는 전 세계 총생산 (GDP)의 약 36%, 인구의 약 11%, 세계 교역의 약 25% (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
 -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과 3위 일본을 비롯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가
 - TPP는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
-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거대 경제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역내 미·중 패권 구도의 변화 예상
 -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태지역 16개국 간 협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보다 TPP 협상을 먼저 타결하면서 역내 주도권 선점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TPP를 통한 중국 견제 시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여 협상이 진행 중

□ TPP는 상품에 대한 관세,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을 비롯 포괄적 분야의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21세기형 FTA' 지향

-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전통적인 FTA 협상 부문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인터넷,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
 - TPP는 총 30개 부문 (chapter)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양자 혹은 복수국간 FTA 대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아직 협정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등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일부 합의 내용만이 공개

-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일본의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약 82%에 대한 현행 관세 2.5% 발효 즉시 철폐
 - 자동차의 경우 관세 철폐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단계별 철폐에 합의. 완성차 생산 시 원산지기준은 역내 조달 55% 이상 합의

- [농산물]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일본은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관세 인하에 합의

- 쌀은 13년 간 연간 7만 톤 무관세 수입, 소고기는 16년 간 현행 38.5%에서 9%로 관세 인하, 돼지고기는 10년 간 kg당 482엔에서 50엔으로 관세 인하

- [의약품 특허]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경우 미국은 12년을, 호주는 5년을 주장하였으나 8년 수준에서 합의

□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는 불참

- 다만 '13.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후 개별 TPP 참여국과 예비 협상을 진행

- 국내적으로는 TPP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

2. TPP에 따른 우리나라 파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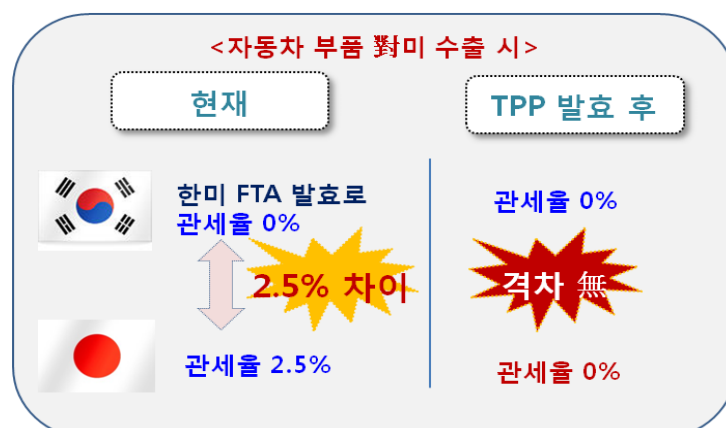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TPP 타결로 (1) 관세율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2) 역내 생산 네트워크 배제로 무역전환 등의 부정적 영향 예상

[1] 관세율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양자 FTA를 체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 등과의 FTA를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 등의 효과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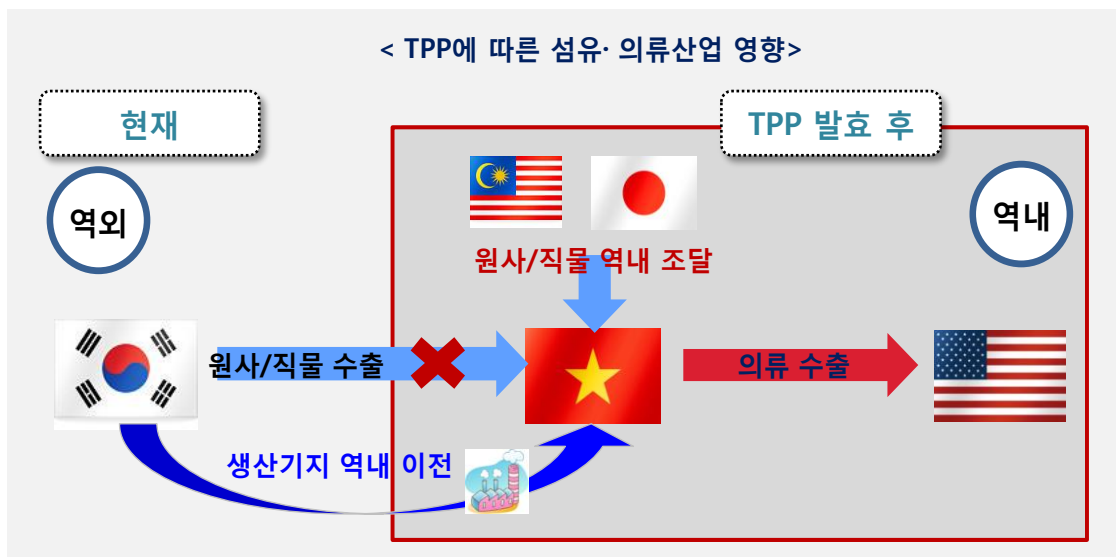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 체결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국회비준 절차 진행 중)

-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일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 타격 우려



[2] 역내 생산 네트워크 배제로 TPP 회원국으로의 무역전환 우려

- 누적원산지기준* 적용과 이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로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 기존에 한국에서 공급받던 소재, 부품 등을 원산지 기준 충족을 통한 TPP 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 국가로 조달 전환 가능성 존재
- * 누적원산지기준이란 생산과정에서 TPP 역내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소재와 부품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더불어 TPP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국내 생산기지의 역내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 섬유·의류 부문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 사용을 통한 완제품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산 원사 공급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로 전환되거나 한국의 생산기지 자체가 이전될 가능성 존재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TPP 불참 시 0.12%의 GDP 감소효과와 제조업 분야 약 1억 불 가량의 무역수지 악화 예상
 - 반면 TPP 참여 시 1.7~1.8%의 GDP 증대 효과 (발효 후 10년)와 연간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 기대

<표 1. TPP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TPP 참여 시	TPP 불참 시
거시경제 효과	1.7~1.8% GDP 증대 (발효 후 10년)	0.12% GDP 감소 (발효 후 10년)
무역수지	연간 약 2~3억 불 무역수지 개선	제조업 분야 약 1억 불 무역수지 악화
생산효과	연간 약 1조원 전후 생산증대 효과	제조업 분야 연간 약 4천억 원 생산 감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협정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인 분석에는 어려움 존재

- ◆ **[철강] 철강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다만 누적원산지기준 적용으로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역내 소재조달 전환 가능성 존재**
 - [對미 수출]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일본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 가능성은 낮은 편
 - [기타 국가] TPP로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의 일본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수출 축소 가능성 존재
 - [수요산업] 자동차, 가전 등의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역내 소재 조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산 철강 소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 **[자동차 부품/완성차]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관세의 즉시 혹은 단계별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자동차 부품]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약 80%에 부과되던 미국 관세 2.5%가 TPP 발효 후 즉시 철폐됨에 따라 한미 FTA에 의한 한국의 가격우위는 사라질 전망
 -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미 FTA로 대부분 관세 철폐 (HS code 8708 기준)
 - 또한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일본산 대체 우려 존재
 - [완성차] 한미 FTA로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되고 현지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對미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다만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과거 대비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존재
- ◆ **[가전/전자]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우 전자/가전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고 현지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영향은 제한적**
 -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이 낮거나 무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기타 국가의 경우 일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과거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 존재
- ◆ **[섬유/의류] TPP 타결로 관세 대부분의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 등 TPP 참가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에 따른 한국산 수출 피해 예상**
 -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전망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생산기지의 베트남 등 역내 국가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한 경우 TPP에 따른 역내 수출 확대 등 수혜 기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TPP 발효]** 최종 협정문 조율작업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 예정. 이후 각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발효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 미국, 일본 등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 찬반 논의가 불거질 수 있어 의회 비준절차가 장기화 될 가능성 존재

- 12개 참가국이 2년 이내에 의회 승인 등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합계 85% 이상 참가국들의 합의 시 효력 발생

□ **[TPP 참여]** 미국과의 관계, 對 TPP 교역규모 등 감안 시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후발 참여국으로서의 제약 존재

○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 이후 세부적인 영향 분석과 국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15.10.6)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발효 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 시 우리 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수용해야 하고 기존 회원국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 필요

-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와의 적극적인 사전 논의 진행과 농산물 등 민감분야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협상전략 마련 필요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논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감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표 2. TPP 참여 여부에 따른 기대영향>

	기대영향	
	긍정적	부정적
TPP 참여시	-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확대 및 교역 환경 개선 - 시장개방 수준이 낮았던 기체결 FTA 효과 개선 - 역내 공급망 강화로 수출 및 생산 확대 - 누적원산지기준 적용으로 TPP 미가입 국가 수출 물량의 참가국 전환 효과,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 역내 투자 및 현지 생산환경 개선	- 국내 시장개방으로 부품, 자동차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 피해 우려 - 농수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서의 수입 증가 우려 - TPP와 기존 FTA 중 유리한 FTA 활용이 가능하나 FTA간 비교 등 부담 존재

TPP 불참시	국내 시장 추가 개방 부담 無	• TPP 참여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TPP 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중간재 수입선을 한국에서 일본 등 다른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
--------------------	-------------------------	---

○ 또한 TPP 경제적 득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 필요

- TPP 참여 시,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 기체결 FTA 개선효과 등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으로 수입 증가 등 피해 우려 상존
- 특히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일본산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철강산업의 경우 TPP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가 예상되므로 수요산업 이탈 방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재정비와 TPP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재 및 부품의 TPP 역내 조달 증가가 예상되는 바, 해외 고객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솔루션마케팅 강화와 해외 수출전략 재정비 필요
 - 또한 TPP 혜택 실현을 위한 생산기지 역내 이전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화에 따른 득실 분석 및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경우 TPP 생산 네트워크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이익 극대화 도모
 - 향후 해외 수출 및 투자 전략 수립 시, 역내 생산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사전적 고려와 우리나라 TPP 가입 가능성 반영 필요

[참고 1] TPP 참여 시 기대영향

□ 향후 TPP 참여 시, 일본, 멕시코 등과의 시장개방, 기체결 FTA 개선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의 피해 우려 상존

① 일본, 멕시코 등 FTA 未체결국과의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입 영향 高

○ 우리나라의 5위 수출대상국인 일본과 10위 수출국 멕시코의 시장개방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상존

- [對일본] 2014년 對일본 교역량은 수출 약 322억불, 수입 약 538억불 기록
- 국내 시장 개방 시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우리나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일본산 수입 증가 우려
- [對멕시코] 2014년 對멕시코 교역량은 수출 약 108억불, 수입 약 33억불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수출 확대 기대. 주요 수입품인 광물 등은 현행 국내관세율 낮은 편으로 영향 제한적

② 기체결 FTA에 대한 개선효과 기대. 반면 추가적인 국내 시장 개방 불가피

○ 포괄적인 분야의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지향하고 있는 TPP에 참여할 경우 시장개방 수준이 낮았던 기체결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 효과

- 한-ASEAN FTA의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냉면, 아연도 강판 등과 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로 수출 확대 효과 제한적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참여 시 시장개방 수준이 높지 않았던 기존 FTA에 대한 개선효과로 약 3억 7천 만 불의 추가적인 수출 증가 예상

○ 다만 국내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수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 존재

- 우리나라는 일본,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TPP 참여국과의 농수축산품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추가 시장개방으로 적자폭 확대 우려

③ 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에 따른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강화

○ TPP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TPP 역외에서 공급받던 소재, 부품 등의 역내 국가 조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 기대

- 누적원산지기준 도입으로 TPP 역내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소재와 부품은 국내산으로 간주
- 우리나라 對 TPP 교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TPP 참여시 역내 공급망 내에서의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 강화 기대

④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과 규범 적용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등의 부담 감소

○ TPP 참여국에 단일 원산지 규정 및 기타 규범이 적용됨으로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 대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 감소 기대

- 다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참가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중복되는 FTA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

<참고 표 1. 한국의 對 TPP 국가 교역 추이 (백만불)>

	수출				수입			
	2001	2005	2010	2014	2001	2005	2010	2014
호주	2,173	3,812	6,642	10,283	5,534	9,859	20,456	20,413
브루나이	16	61	65	290	452	787	1,522	1,292
캐나다	2,036	3,446	4,102	4,917	1,821	2,604	4,351	5,443
칠레	573	1,151	2,947	2,083	696	2,279	4,221	4,810
일본	16,506	24,027	29,176	32,184	26,633	48,403	64,296	53,768
말레이시아	2,628	4,608	6,115	7,583	4,126	6,012	9,531	11,098
멕시코	2,149	3,789	8,846	10,846	267	460	1,521	3,268
뉴질랜드	272	670	918	1,730	743	891	1,176	1,526
페루	188	282	944	1,392	116	249	1,039	1,433
싱가포르	4,080	7,407	15,244	23,750	3,011	5,318	7,850	11,303
베트남	1,732	3,432	9,652	22,352	386	694	3,331	7,990
미국	31,211	41,343	49,816	70,285	22,376	30,586	40,403	45,283
TPP 12 전체	63,564	94,028	134,467	187,695	66,161	108,142	159,697	167,627
對세계 총수출입	150,439	284,419	466,384	572,665	141,098	261,238	425,212	525,515
TPP 비중(%)	42.3	33.1	28.8	32.8	46.9	41.4	37.6	31.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참고 표 2. TPP 협정 포함 30개 분야 (chapter)>

(1) 기본조항 및 일반정의 (2) 상품 무역 (3) 섬유 및 의류 (4) 원산지 규정 (5) 통관 행정 및 무역 촉진 (6) 위생 및 검역 조치 (7) 기술장벽 (8) 무역구제 (9) 투자 (10) 국경 간 서비스 무역 (11) 금융서비스 (12) 기업인의 한시적 입국 (13) 텔레커뮤니케이션 (14) 전자상거래 (15) 정부조달 (16) 경쟁정책 (17) 국영기업 및 독점기업 (18) 지적재산권 (19) 노동 (20) 환경 (21) 협력 및 역량 강화 (22)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23) 개발 (24) 중소기업 (25) 규제 일관성 (26) 투명성과 반부패 (27) 행정적 규범적 조항 (28) 갈등조정 (29) 예외 (30) 최종 조항

[참고자료]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4

김한성, '중국 배제된 초대형 아태 생산네트워크: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21세기 무역의제 포함', 포스코경영연구원 친디아플러스 2015년 10월호

김규판, '중국 견제 글로벌화 등 다목적 포석: AIB와 TPP의 아태 경쟁 패권 시작', 포스코경영연구원 친디아플러스 2015년 10월호

박변순, 'TPP 우산에 들어오는 국가들: 경제개혁, 대중 우국 확보 겨냥', 포스코경영연구원 친디아플러스 2015년 10월호

김지선, '무역수지 2억~3억 달러 개선 기대, 파급영향 커 전략 균형 필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친디아플러스 2015년 10월호

Jeffrey J. Schott, 'Korea and the TPP: The Inevitable Partnershi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5.8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World Bank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데이터베이스 (<http://wits.worldbank.or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웹사이트 (www.ustr.gov)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ww.piie.com)